

TDB경기동향조사(전국) - 2015년9월 조사

2015년10월5일

주식회사 테이코쿠데이터뱅크 <http://www.tdb.co.jp/>

경기동향 조사전용HP <http://www.tdb-d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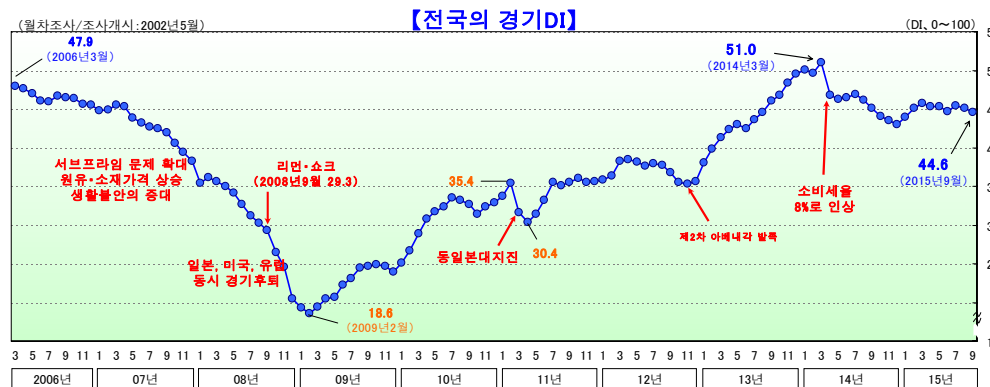
양극화 진행되는 국내경기, 2개월 연속후퇴

~ 기상불안정이 치명타 ~

(조사대상 2만3,257사, 유효회답 1만752사, 회답률 46.2%,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9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44.6이 되어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국내의 설비투자가 약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집중호우 등의 기상불안정이나 공공공사의 감소는 지역경제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 국내경기는 생산활동의 약세가 보이며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는 신년 이후에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업계별로는 『제조』 『도매』 『서비스』 『금융』 등 5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자동차나 전기기계용 공작기계나 산업기계 등 기계관련의 생산침체가 관련업종으로 파급되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는 신선식품의 가격급등 이외에, 공공공사의 진척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 지역별로는 『키타칸토』 나 『킨키』 『시코쿠』 등 7개 지역이 악화, 『츄고쿠』와 『큐슈』의 2개 지역이 개선, 『호카이도』가 보합되었다. 특히 『키타칸토』에서는 자재조달이나 여가관련 등에서 호우피해의 영향이 크게 발생한 이외에, 중국경제의 감속이 지역내 제조업의 수출이나 수주의 감소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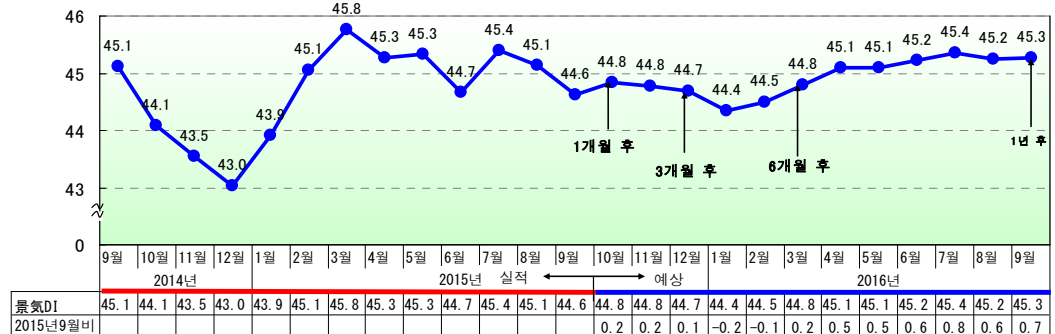


< 2015년 9월의 동향 : 양극화가 진행된다 >

2015년 9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44.6이 되어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9월은 태풍 등에 의한 기상불안정이 더하여 국내의 설비투자가 약한 하락세를 보이는 이외에, 국내 자동차생산의 침체나 중국경제의 감속에 의하여 공작기계의 수주가 대폭 감소하였다. 더욱이 관련된 제조업이나 도매업으로 파급되어 전체 체감경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공공공사는 여전히 감소가 지속된데다, 지역에 따라 증감경향이 다르므로 감소한 지역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반면, 가솔린이나 경유가격의 하락으로 코스트부담이 완화되고 주택착공건수의 증가에 의하여 건설업이 개선되어 자재운반의 화물이동이 활발하였던 『운수·창고』는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국내외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생산활동의 약세가 보이며, 집중호우에 의해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 향후의 전망 : 신년 이후에 오름세 >

8월 하순 이후의 추가급락의 영향에 대한 불투명감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 경제의 장래에 대한 우려에 동반하는 수출감소나 설비투자억제의 저하 이외에,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도 더해져 당분간은 정체상태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박하는 노동수급은 고용자소득을 증가시켜 개인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공공공사의 발주증가가 예상되나, 경기향방은 내년의 참의원선거를 향한 경기 대책에 따른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2014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시에 보였듯이 차기 세율인상에 동반한 갑작스런 수요도 주택 등을 중심으로 2016년 초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호전으로의 재료가 부족하지만, 신년 이후에는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10개 업계 중 5개 업계에서 악화, 기계관련 생산정체가 관련업종에 파급

• 『제조』 『도매』 『서비스』 『금융』 등 5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공작기계나 산업기계 등 기계관련의 생산침체가 관련업종으로 파급되었다. 또한 집중호우 등의 기상불안정은 신선식품의 가격급등 이외에, 공공공사의 진척이 늦어지는 요인이 되었다.

• 『제조』 (43.2)…전월 대비 1.0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중국경제의 감속에 더하여 북미의 설비투자가 보합세를 나타낸 이외에, 국내에서도 자동차나 전기기계 등을 중심으로 공작기계의 수주가 대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기계제조」 (47.3, 동 3.0포인트 감소)나 자동차의 생산감소에 직면하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 (48.3, 동 2.5포인트 감소)등 기계관련이 대폭으로 악화되었다. 또한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8.8, 동 1.4포인트 감소)는 대기업 의복브랜드의 폐지나 고객처의 강한 판매가격 인하 요청 등도 요인이 되었다. 『제조』는 12개 업종 중 9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 『도매』 (41.2)…동 0.7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자동차나 전기기계의 생산이 침체되는 가운데 수송용기계나 산업용기계, 금속가공기계 등을 포함하는 「기계·기구도매」 (43.6, 동 1.7포인트 감소)나, 철강도매나 석유도매를 포함하는 「철강·비철·광업제품도매」 (38.5, 동 1.8포인트 감소)도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재생자원도매」 (25.8, 동 10.2포인트 감소)는 자원관계의 국제시세 하락에 의하여 제강원료의 가격도 하락한 이외에, 중국의 경기감속으로 철이나 플라스틱 등의 가격하락의 영향을 받아 2012년 10월(22.4) 이래가 되는 낮은 수준까지 악화되는 등 『도매』는 9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 『서비스』 (49.6)…동 0.5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어 3개월만에 50을 하회하였다. 「음식점」 (45.3, 동 6.0포인트 감소)은 기상불안정에 의한 야채가격의 급등으로 원가율이 상승하여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하는 이외에, 경쟁점포의 신규출점이 많아서 동족상잔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리스·임대」 (48.0, 동 1.9포인트 감소)는 건설기계렌탈 등으로 공공공사의 발주감소 등에 의한 고전지 지속되어 4개월만에 악화되었다. 또한 인구감소를 바탕으로 하는 업계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학원이나 개인교습소등의 악화가 영향을 끼친 「교육서비스」 (42.1, 동 2.0포인트 감소) 등 『서비스』는 15개 업종 중 10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 『금융』 (46.3)…동 0.2포인트 감소. 3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8월에 발생한 중국을 발단으로 하는 세계동시 주가하락으로부터 그 후의 움직임이 약한 하락세로 추이하여 증권업 관련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생명보험 관련에서는 연금보험계약이 저조하여 채감경기가 악화되는 요인이 되었다. 금리의 하락경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영세기업의 자금수요는 높아지지 않으며 「상환액경감」 등의 조건변경의 안전이 증가하고 있다 (신용금고·동 연합회)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14년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비
총·임·수신	42.1	41.8	38.6	39.5	41.3	40.0	44.0	43.7	45.0	41.9	42.9	44.7	44.7	0.0
금융	47.1	44.9	45.3	45.2	45.1	44.7	48.0	48.1	47.4	49.2	48.1	46.5	46.3	▲ 0.2
건설	52.8	51.6	51.0	50.3	50.4	50.4	50.8	49.3	48.6	47.7	48.6	48.8	49.1	0.3
부동산	47.0	45.2	43.6	44.1	45.1	47.2	48.8	48.8	49.6	49.1	49.8	48.4	48.7	0.3
제조	식품료품·서로제조	39.5	39.0	36.8	37.5	37.2	39.8	43.1	42.1	44.3	43.1	43.4	43.0	0.6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9.8	39.4	36.8	38.1	36.8	39.7	37.6	40.2	41.7	39.4	39.4	40.2	▲ 1.4
	건설·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43.3	44.0	44.1	43.3	43.2	41.9	42.1	40.3	40.9	40.3	41.2	41.2	▲ 0.3
	펄프·종이·종이공업제품제조	36.1	36.7	36.1	36.3	34.8	37.3	39.3	39.8	40.0	39.0	39.7	42.0	▲ 1.2
	출판·인쇄	33.1	31.5	31.5	31.0	31.8	33.5	34.1	34.6	34.1	33.5	33.7	34.9	▲ 0.1
	화학제품제조	43.4	42.4	42.9	43.3	43.2	44.5	44.6	44.1	44.4	43.9	44.7	45.3	▲ 0.9
	철강·비철금속·광업	46.8	45.3	44.4	42.8	44.8	46.8	45.2	43.9	43.0	42.9	43.6	42.8	▲ 1.1
	기계제조	51.7	50.5	50.0	48.6	49.6	51.5	52.6	52.5	51.6	51.3	51.9	50.3	▲ 3.0
	전기기계제조	46.2	46.1	45.9	45.8	47.3	48.4	49.7	47.7	47.3	47.4	47.4	44.8	0.4
	수송용기계·기구제조	50.7	48.2	48.0	47.7	47.4	50.3	50.4	51.1	47.8	49.7	50.9	50.8	▲ 2.5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48.1	46.6	45.4	45.0	47.9	48.9	49.2	47.8	49.8	49.4	50.4	51.2	▲ 3.3
	기타 제조	38.3	37.9	38.4	35.2	35.4	38.7	38.7	37.1	40.7	37.8	39.2	37.0	2.3
	전체	44.2	43.4	42.9	42.3	43.0	44.6	45.1	44.4	44.5	44.0	44.6	44.2	▲ 1.0
도매	식품료품도매	39.9	39.0	37.1	37.6	38.3	39.7	40.6	42.6	42.9	43.0	44.1	42.7	0.9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5.3	34.3	30.7	30.2	31.1	32.2	33.3	35.2	37.0	34.8	34.4	34.7	1.8
	건설·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41.5	41.0	39.5	39.3	39.0	40.5	40.2	38.2	38.7	38.1	39.8	39.7	▲ 0.2
	종이류·문구·서적도매	33.8	32.9	33.5	31.8	33.2	35.1	37.7	37.3	38.1	34.5	37.1	36.5	0.3
	화학제품도매	40.8	40.6	40.0	37.8	38.9	41.2	41.8	42.5	43.0	43.1	43.9	42.6	▲ 0.3
	제강자원도매	46.1	37.8	40.4	40.8	39.0	38.5	39.3	39.7	42.3	40.1	35.8	36.0	▲ 10.2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43.5	43.2	43.8	42.1	43.9	43.5	43.2	41.2	40.3	39.3	40.4	40.3	▲ 1.8
	기계·기구도매	44.9	43.9	43.6	43.2	44.8	46.0	47.3	46.7	46.3	45.1	45.6	45.3	▲ 1.7
	기타 도매	38.5	36.7	37.1	35.1	37.5	38.5	40.7	40.9	41.8	42.0	42.4	41.4	▲ 0.6
	전체	41.5	40.6	40.0	39.1	40.4	41.5	42.5	42.3	42.5	41.7	42.5	41.9	▲ 0.7
소매	식품료품소매	39.3	36.8	34.7	34.5	36.8	38.2	39.4	39.3	41.6	42.7	45.0	44.0	0.5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8.2	36.7	32.0	30.8	30.7	32.3	34.8	38.0	40.2	37.0	38.6	38.7	▲ 1.8
	의약품·의료장비제품소매	41.7	41.1	42.6	38.9	44.6	45.3	46.0	48.1	48.0	48.6	49.3	48.7	▲ 2.0
	가구류소매	37.0	22.7	27.3	26.4	28.8	33.3	27.8	35.0	40.0	43.3	41.7	41.7	1.2
	가전·정보기구소매	36.1	36.2	36.0	34.3	39.3	39.0	43.2	38.4	41.5	40.6	38.9	38.3	6.3
	자동차·동·부품소매	33.0	30.1	31.8	28.7	37.8	40.7	38.8	36.5	39.9	37.2	38.3	38.7	▲ 0.1
	전문상소매	36.2	36.3	36.0	39.2	41.4	43.7	42.3	40.9	40.5	38.0	39.9	41.6	▲ 0.9
	각종상소매	41.8	41.2	39.1	40.5	42.6	41.0	40.6	47.1	49.7	48.1	48.8	49.0	▲ 1.7
	기타 소매	37.5	40.0	40.0	41.7	33.3	36.7	38.9	41.7	36.1	43.2	35.7	44.4	0.0
	전체	37.5	36.3	35.5	35.9	39.1	40.5	40.5	40.2	42.1	40.7	41.9	42.4	▲ 0.2
운수·창고		43.7	43.7	44.8	43.8	43.7	44.8	44.9	44.8	44.8	42.6	44.4	44.9	0.2
서비스	음식점	46.7	42.6	45.1	39.9	44.6	45.2	49.2	50.0	49.6	48.3	47.4	51.3	▲ 6.0
	전기통신	50.0	46.3	48.1	50.0	56.3	53.7	48.3	54.2	53.7	50.0	47.0	53.0	6.3
	전기·가스·수도·열공급	50.0	46.3	43.8	44.4	50.0	50.0	48.3	55.0	53.7	53.0	50.0	51.9	4.8
	리스·임대	51.8	49.7	49.9	49.1	50.9	50.0	49.3	49.6	47.9	47.9	48.7	49.9	▲ 1.9
	호텔·호텔	46.2	46.3	47.0	46.7	47.7	48.6	51.4	53.1	54.2	59.2	59.0	58.3	▲ 0.7
	오락서비스	39.4	39.5	36.4	36.5	34.4	36.7	40.6	38.7	40.2	37.9	37.3	38.0	▲ 0.1
	방송	44.0	45.2	43.3	41.7	44.4	40.0	45.6	47.9	45.6	46.1	49.1	46.1	▲ 4.4
	엔터테인먼트·경비·경사	45.7	45.8	43.1	42.6	44.6	46.9	47.2	47.8	48.1	47.4	47.6	44.6	▲ 1.4
	광고관련	41.1	38.6	38.7	38.8	38.8	39.3	42.1	42.2	41.1	41.0	39.8	40.7	0.1
	정보서비스	52.8	51.4	51.6	52.2	53.5	54.6	56.3	56.3	55.3	55.4	56.4	55.8	▲ 0.3
	엔터테인먼트·소매	56.9	55.6	53.9	54.0	55.7	57.5	56.5	56.5	56.2	56.3	54.4	55.0	▲ 0.8
	전문서비스	53.9	50.7	50.7	50.3	50.8	51.4	53.0	51.0	51.7	50.9	52.0	51.4	0.1
	의료·복지·보건위생	46.2	46.2	45.0	44.1	44.7	45.7	45.3	46.1	46.3	43.2	45.3	43.6	▲ 0.8
	교육서비스	41.7	42.4	41.7	39.9	40.5	40.2	41.7	39.5	41.2	41.1	44.4	40.6	▲ 2.0
	기타 서비스	47.2	44.9	45.2	45.0	47.4	48.1	47.2	46.1	46.8	49.5	50.9	48.5	0.8
	전체	49.2	47.7	47.3	47.2	48.3	49.2	50.3	50.1	49.9	49.7	50.4	50.1	▲ 0.5
기타		42.8	40.6	37.7	41.5	37.3	41.7	42.0	43.2	40.2	41.9	42.6	40.7	0.7
격차 (10개업계별『기타』제외)		15.3	15.3	15.5	14.4	11.3	10.4	10.3	9.9	7.8	9.0	8.5	8.2	8.4
중국진출		46.2	45.5	45.3	44.7	45.6	47.4	47.8	48.2	47.9	47.0	47.5	46.9	▲ 1.3
태양광발전		50.2	47.7	46.5	46.0	45.7	47.0	48.0	46.0	47.2	44.5	47.8	46.5	▲ 1.5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낸다.

※「태양광발전」은 셀·모듈, 부품·재료, 제조장치의 각 제조회사, 에너지, 판매·시공을 포함한다.

규모별 : 「대기업」이 3개월만에 악화, 자동차나 산업기계의 부진이 눈에 띄다

- 「대기업」이 48.2(전월 대비 0.7포인트 감소), 「중소기업」이 43.6(동 0.5포인트 감소), 「소규모기업」이 43.2(전월과 같은 수준)가 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악화되었다. 「대기업」은 자동차관련이나 산업기계관련이 저조하였던 『제조』, 중국이나 한국과의 수출입화물이 감소하고 있는 『운송·창고』 등 6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저조한 국내생산활동을 반영하여 자동차나 철강관련의 침체가 영향을 끼친 『도매』, 토지매매가 저조한 『부동산』 등 3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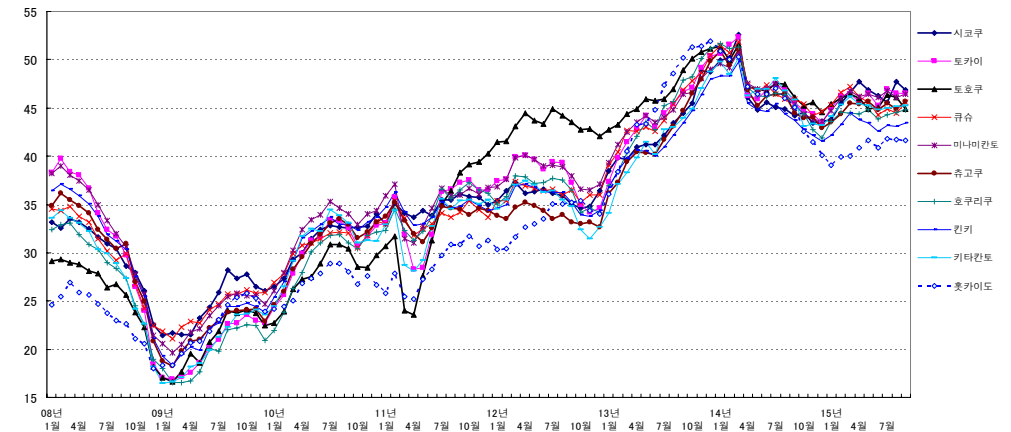
	14년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비
대기업	48.1	47.5	46.9	46.6	47.1	48.0	48.6	48.9	49.2	48.4	48.8	48.9	48.2	▲ 0.7
중소기업	44.3	43.1	42.6	42.0	43.0	44.2	45.0	44.3	44.3	43.6	44.5	44.1	43.6	▲ 0.5
(그 중 소규모기업)	44.0	42.5	42.1	41.6	42.3	43.4	44.3	43.1	43.2	43.1	43.4	43.2	43.2	0.0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3.8	4.4	4.3	4.6	4.1	3.8	3.6	4.6	4.9	4.8	4.3	4.8	4.6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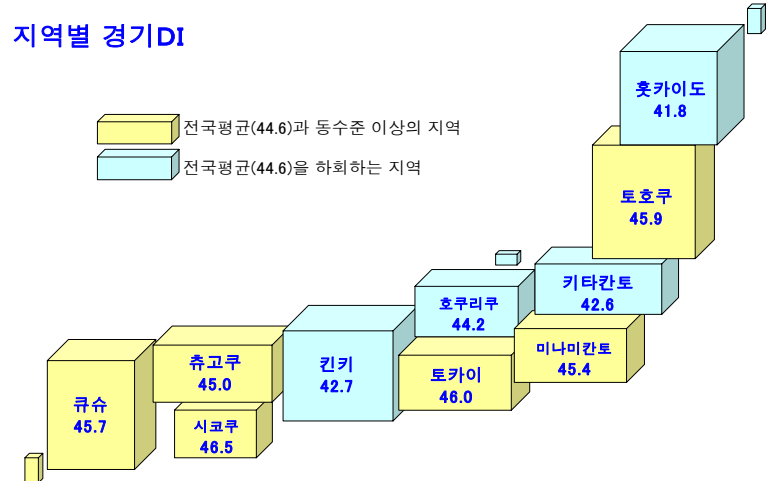
지역별 :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악화, 『키타칸토』에서 호우의 영향

- 『키타칸토』나 『킨키』『시코쿠』 등 7개 지역이 악화, 『츄고쿠』와 『큐슈』의 2개 지역이 개선, 『홋카이도』가 보합되었다. 집중호우에 의하여 자재조달이나 여가관련에서 지장이 생긴 이외에, 공공공사의 지연 등이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 『키타칸토』(42.6)…전월 대비 2.6포인트 감소. 3개월만에 악화되었다. 지역내 6개 현 전부가 악화되었다.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크고 자재조달이나 화물이동에 악영향을 끼친 이외에, 건설관련에서 공사진척의 지연이나 여가관련의 부진 등이 드러났다. 더욱이 중국경제의 감축이 지역내 주력 제조업의 수출이나 수주의 감소로 이어졌다. 『부동산』과 『제조』『서비스』 등 10개 업계 중 8개 업계가 악화되고 특히 「소규모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 『킨키』(42.7)…동 0.4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공공공사가 건수, 금액 모두 대폭으로 감소한데다 민간공사도 적어 『건설』(전월 대비 1.6포인트 감소)이 2개월만에 악화되었다. 『소매』(동 1.9포인트 감소)는 장마의 영향이 장신구관련을 중심으로 드러나 2개월만에 악화되었다. 「대기업」이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개선된 한편, 「중소기업」은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된 규모간 격차가 4개월만에 확대 되었다.
- 『시코쿠』(46.5)…동 1.2포인트 감소. 2개월만에 악화되었다. 호조인 조선을 배경으로 전국1위는 유지하였으나 소비세율 인상직후(2014년 5월, 동 1.3포인트 감소)이래, 16개월만의 악화폭이 되었다. 8월 하순 이후의 기상불안정으로 농산물의 생육이 좋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어 『농·임·수산』(동 8.3포인트 감소)이 7개월만에 악화되었다. 『서비스』(동 5.6포인트 감소)는 정보서비스나 인재과전·소개 등이 저조하여 2014년 4월 이래의 악화폭이 되었다.

지역별 그래프(2008년1월 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 경기DI



	14년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비
홋카이도	45.0	42.5	41.5	40.1	39.1	39.9	40.0	40.8	41.6	40.9	41.8	41.8	41.6	▲ 0.2
도호쿠	46.1	45.2	45.6	44.5	45.4	46.0	46.5	46.0	44.9	45.0	46.3	46.1	44.9	▲ 1.2
키타칸토	45.8	43.1	43.4	43.2	44.1	45.3	46.2	45.4	45.2	44.8	45.0	45.2	45.2	0.0
미나미칸토	45.4	44.4	43.8	43.6	44.7	46.0	46.8	46.2	46.5	46.1	46.8	46.1	46.5	0.4
호쿠리쿠	45.2	44.3	42.8	41.9	43.6	44.6	44.4	44.4	44.4	43.8	44.3	44.6	44.8	0.2
도카이	45.6	44.7	44.4	43.4	45.0	46.3	46.4	45.6	46.5	45.3	46.9	46.5	46.5	0.0
킨키	43.7	42.7	42.1	41.5	42.2	43.2	44.5	43.7	43.4	42.6	43.2	43.1	43.4	0.3
츄고쿠	44.5	43.9	44.0	42.9	43.6	44.4	45.5	45.4	45.6	44.8	45.5	44.9	45.6	0.7
시코쿠	44.2	44.5	43.5	43.6	43.8	45.5	46.6	47.7	46.9	46.3	45.6	47.7	46.9	▲ 0.8
큐슈	46.0	45.4	44.2	44.7	45.3	46.6	47.2	46.2	45.6	44.3	44.9	44.5	45.6	1.1
격차	2.4	2.9	4.1	4.6	6.3	6.7	7.2	6.9	5.3	5.4	5.1	5.9	5.3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